

<Brief Report>

자기개념 수준에 따른 편집증 하위유형의 탐색*

이 훈 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자기개념, 타인개념, 귀인양식 등 편집증의 핵심 변인을 중심으로 편집증의 하위유형을 탐색하였다. 대학생 223명에게 편집 척도, Beck 우울 척도, 적대감 척도, 자기개념 질문지, 타인개념 질문지, 사회적 자기개념 질문지, 귀인양식질문지를 실시한 후 편집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편집 집단을 선발하였다. 편집증 하위 유형 탐색을 위해 선발된 편집 집단을 군집 분석하여 두 하위 군집을 추출하였으며, 자기개념 수준에 따라 두 하위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집증 하위집단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하위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고, 사회적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며, 긍정 사건을 내부로 귀인하였다. 높은 적대감과 부정적 타인개념은 두 집단의 공통 특성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편집증 하위유형, 자기개념, 타인개념, 귀인양식

최근 10여 년 동안 편집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편집증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편집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편집증 집단이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 및 기억편향을 보인다는 사실(e.g., Bentall, Kaney, & Bowen-Jones, 1995;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Wofenden, Dewey, &

Bentall, 1991),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방어적 귀인편향의 결과라는 사실(e.g., 이명원, 1999; 이훈진, 1999, 2000c; 이훈진, 원호택, 1998;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Candido & Romley, 1990; Fear *et al.*, 1996;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6, 1997)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를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부설 한림과학원의 2002 학년도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FAX : 033-256-3424 / E-mail : hjlee@hallm.ac.kr

바탕으로 많은 치료적 접근이 개발되었다(이훈진, 2000d; Alford & Beck, 1994; Bentall, 1996; Bentall, Haddock, & Slade, 1994; Chadwick, Birchwood, & Trower, 1996; Chadwick, Lowe, Horne, & Higson, 1994; Chadwick & Trower, 1996).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편집증의 하위 유형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고 경험적 검증도 거의 없었다. Chadwick 등(1996), Chadwick과 Trower (1996)는 편집증을 피해(persecution) 편집증 또는 “못난 나(poor me) 편집증”과 처벌(punishment) 편집증 또는 “나쁜 나(bad me) 편집증”으로 구분하였다. 피해 편집증은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반면, 처벌 편집증은 자신을 나쁘다고 보고 자신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 편집증은 불공평의 지각, 무시당함, 거부당함 등의 경험과 관련되고,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반면, 처벌 편집증은 비난, 반대를 주로 경험하고, “나는 나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Chadwick 등(1996)의 이러한 주장과 선행 연구들(이훈진, 2000c; 이훈진 원호택, 1998; Bentall *et al.*, 1994; Fear *et al.*, 1996;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6, 1997)의 결과는, 편집증이 자기개념과 귀인양식에서 서로 다른 두 하위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자기개념을 핵심 변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Chadwick 등(1996)의 치료적 접근에서도 시사되듯이, 하위유형의 존재 여부는 편집증의 이해와 치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등 핵심 특성에서 다른 집단을 동일 집단으로 가정하고 동일한 치료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효과적 치료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편집증의 하위유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훈진과 원호택(1998), 이훈진(2000a, c)이 우울 증상의 동반 여부에 따라 대학생 집단을 편집-우울, 편집-비우울로 구분하였으나, 이 연구들은 편집증 하위유형 자체를 탐색한 연구는 아니었고, 또한 Chadwick 등(1996)이 가정한 핵심 개념인 “나(me)”, 즉 자기개념에 따라 하위유형을 탐색하지는 않았다. 우울과 부정적 자기개념이 동일 개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e.g.*, Chadwick *et al.*, 1996; Trower & Chadwick, 1995)이 우울과 부정적 자기개념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대해 지적한 점을 고려할 때, 우울이 아닌 자기개념 수준에 근거한 하위유형 탐색이 필요하며, 또한 Chadwick 등(1996)의 임상적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편집증의 핵심 요인으로 밝혀진 자기개념, 타인개념, 귀인양식을 중심으로 하위유형을 탐색하고, 자기개념 수준에 따라 편집증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하위 유형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피험자

대학생 223명(남 144, 여 79)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도 구

편집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20 문항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편집성향을 측정한다.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개념 질문지: 이훈진과 원호택(1998)이 개발한 척도로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측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5문항씩 총 30문항이다. 내적합치도(α)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타인개념 및 사회적 자기개념 질문지: 자기개념 질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형식으로 바꾸어 제작하였다. 내적합치도는 각각 $\alpha=.89$, $\alpha=.92$ 였다.

적대감 척도: SCL-90-R(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적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귀인양식 질문지: 이영호(1993)가 개발한 것으로, 12개의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그 가능한 원인을 쓰고 내부, 안정성, 총체성 차원에서 귀인평정을 하도록 한다.

분석

편집증 점수에서 상위 1 표준편차 이상인 편집성향 집단 37명(남 25, 여 12)을 선발한 후 K-평균 군집 분석법을 적용해 군집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23명 전체집단의 자기개념 평균을 기준으로 편집성향 집단을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비편집 집단과 비교하였다. 집단 비교는 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검증을 사용하였다.

결 과

군집 분석

특정 가설에 기초하지 않은 하위유형 탐색을 위해, 그리고 자기개념 수준에 따른 하위유형 구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군집분석을 하였다. 선발된 37명의 편집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K-평균 군집 분석하여, 집단 내용집성과 집단 간 분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2개의 하위 군집을 추출하였다. 군집을 3개 이상으로 지정한 경우 많은 변인들에서 집단 차가 없어 집단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 과정에서 한 명이 제외되어 두 하위 집단은 각각 14명(남 8, 여 6), 22명(남 16, 여 6)이었다. 추출된 두 군집의 자기개념, 타인개념, 사회적 자기개념, 우울, 적대감, 귀인양식 점수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하위 집단 I은 하위 집단 II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며,

표 1. 군집 분석에 따른 하위집단별 특성

	하위집단 I (n=14)	하위집단 II (n=22)	F 값
편집	36.71 (4.36)	41.05 (8.30)	1.81
우울	7.57 (4.11)	17.82 (7.06)	24.11 ***
적대감	8.64 (3.52)	10.41 (4.16)	1.73
자기개념	108.50 (7.78)	90.09 (8.65)	41.78 ***
타인개념	94.50 (8.83)	91.18 (8.85)	1.20
사회적 자기	111.43 (10.76)	101.95 (12.09)	4.02
긍정사건 내부	4.96 (0.54)	4.42 (0.64)	6.85 *
안정성	5.27 (0.58)	4.67 (0.64)	8.26 **
총체성	5.35 (0.68)	4.91 (0.76)	3.06
부정사건 내부	4.63 (0.52)	4.57 (0.80)	0.55
안정성	4.11 (0.63)	4.64 (0.80)	4.52 *
총체성	4.77 (0.90)	4.88 (0.99)	0.10

* $p < .05$ ** $p < .01$ *** $p < .001$

긍정 사건을 내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귀인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자기개념 점수에서도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F(1, 34)=4.02, p<.06$. 반면, 적대감 수준, 타인개념 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높은 적대감과 부정적 타인개념은 편집 집단의 공통 특성이며, 자기개념, 우울 수준, 내외 귀인, 안정성 귀인에서는 하위 유형별로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자기개념 수준에 따른 하위유형 분석

선행 연구들에서 편집증의 핵심 요인으로 시사된 자기개념 수준에 따라 37명의 편집성향 집단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기개념이 223명 전체 평균(105.87, 표준편차 14.96) 이상일 경우 하위 집단 I로, 평균 이하인 경우 하위 집단 II로 구분한 후 통제 집단(비편집 집단: 편집 점수에서 하위 1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 중 무작위로 추출

된 집단)과 비교하였다. 두 하위 집단은 각각 13명(남 8, 여 5), 24명(남 17, 여 7)이었으며, 통제 집단은 17명(남 13, 여 4)이었다. 두 하위 집단과 통제 집단의 자기개념, 타인개념, 사회적 자기개념, 우울, 적대감, 귀인양식 점수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보고한 편집증 하위 집단(집단 I)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하위 집단(집단 II)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고 사회적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며, 긍정 사건을 내부로 귀인 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적대감 수준, 타인개념 점수, 안정성, 총체성 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편집증 하위 집단도 통제 집단에 비해서는 자기개념과 사회적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우울 수준과 적대감 수준이 높았다. 이 결과는 높은 적대감과 부정적 타인개념은 편집성향 집단의 공통 특성이며, 자기개념, 사회적 자기개념, 우울 수준, 내외 귀인에서는 하위 유형별로 서로

표 2. 자기개념 수준에 따른 편집증 하위 집단별 특성

	하위집단 I (n=13)	하위집단 II (n=24)	통제집단(C) (n=17)	F 값	Scheffé 검증결과
편집 척도	37.23 (4.30)	40.75 (8.23)	12.53 (3.39)	111.53 ***	II ≙ I > C
우울 척도	8.92 (5.99)	17.08 (7.71)	2.76 (1.86)	28.74 ***	II > I > C
적대감 척도	8.38 (3.38)	10.38 (4.08)	2.94 (2.30)	23.65 ***	II ≙ I > C
자기개념 척도	109.08 (7.79)	89.63 (9.72)	123.06 (8.34)	72.63 ***	C > I > II
타인개념 점수	93.69 (9.35)	91.29 (8.87)	102.82 (9.85)	7.98 ***	C > I ≙ II
사회적 자기개념	114.00 (11.71)	100.17 (10.60)	124.76 (10.07)	26.80 ***	C > I > II
긍정사건 내부귀인	4.96 (0.56)	4.45 (0.64)	5.00 (0.56)	5.24 **	C ≙ I > II
안정성 귀인	5.19 (0.69)	4.74 (0.63)	5.68 (0.58)	10.83 ***	C > II
총체성 귀인	5.28 (0.82)	4.96 (0.70)	5.61 (0.50)	4.46 *	C > II
부정사건 내부귀인	4.61 (0.49)	4.58 (0.80)	4.34 (0.75)	0.68	
안정성 귀인	4.12 (0.65)	4.62 (0.79)	3.56 (0.78)	9.54 ***	II > C
총체성 귀인	4.69 (0.94)	4.92 (0.96)	4.25 (0.90)	2.48	

* $p < .05$ ** $p < .01$ *** $p < .001$

다름을 시사하는 것으로 안정성 귀인을 제외하고는 앞의 군집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하위 집단 I, II는 군집 분석에서 추출한 두 집단과 모든 변인에서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집단별로는,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집증 하위집단은 자기개념과 사회적 자기개념이 타인개념보다 높았고, $t(12)=4.79, p<0.01$; $t(12)=4.79, p<0.01$, 귀인양식에서는 부정사건보다 긍정사건을 더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귀인 하였다. $t(12)=3.70, p<0.01$; $t(12)=2.61, p<0.05$.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편집증 하위집단은 자기개념과 타인개념보다 사회적 자기개념이 높았다, $t(23)=-4.58, p<0.01$; $t(23)=-4.28, p<0.01$. 통제집단은 자기개념과 사회적 자기개념이 타인개념보다 긍정적이었고, $t(16)=7.70, p<0.01$; $t(16)=7.17, p<0.01$, 긍정 사건을 부정 사건보다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으로 귀인 했다, $t(16)=3.15, p<0.01$; $t(16)=9.51, p<0.01$; $t(16)=5.93, p<0.01$.

논 의

본 연구는 편집증의 하위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군집분석과 자기개념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 구분을 시도함으로써 Chadwick의 가설(Chadwick *et al.*, 1996; Chadwick & Trower, 1996; Trower & Chadwick, 1995)을 검증한 것이다. 연구 결과, 군집분석에서 추출된 두 집단과 자기개념 수준에 따라 구분된 두 하위 집단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나타냈다.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집증 하위집단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하위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사회적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며, 긍정 사건을 내부로 귀인 하는 특성이 있

었다. 적대감과 타인개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두 편집 집단은 모두 비편집 집단에 비해서는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사회적 자기개념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과 적대감이 높았다. 이 결과는 편집증 집단이 자기개념 수준에 따라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높은 적대감과 부정적 타인개념은 하위 유형과 관계없이 편집성향 집단의 공통 특성임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개념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한 두 하위 집단이 군집 분석에서 추출한 두 집단과 모든 변인에서 거의 동일한 점수를 보였다는 점은 자기개념 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자기개념이 편집증 하위유형 구분의 핵심 변인일 수 있다는 Chadwick의 임상적 가설(Chadwick *et al.*, 1996; Chadwick & Trower, 1996; Trower & Chadwick, 1995)이 타당함을 시사하며, 편집증의 이해와 치료에서 하위집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치료적 측면에서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하위집단은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집단보다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을 먼저 다루고 편집 신념을 후에 다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해서, 본 연구 결과가 이훈진과 원호택(1998)의 편집-우울, 편집-비우울 집단 비교와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울과 부정적 자기개념을 동일 개념으로 가정할 경우에만 타당한 비판이다. 우울과 자기개념은 분명히 동일 개념이 아니며, 자기개념은 우울증뿐 아니라, 편집성향, 사회불안, 섭식 장애 등 많은 임상 현상에서 핵심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인 자기개념에 따른 편집증 하위유형 탐색은 선행

연구와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그동안 임상적으로만 제기되었던 Chadwick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에 국한된 연구대상 집단, 작은 표집으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모든 측정치가 자기보고에 의존했다는 점, 역기능적 태도, 분노표현양식 등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Chadwick 등(1996), Chadwick과 Trower(1996)가 주장한 초기 경험 및 부모의 태도상의 두 하위집단 간 차이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 부모에 대한 아동기 지각 등이 편집성향의 발달에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하위 집단의 경우 부정적 자기개념, 높은 우울 수준 등 우울 집단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데, 우울 집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위유형 탐색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이명원 (1999). 자기개념의 위협에 따른 편집성향자들의 주의편향 및 귀인양식. 미발표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미발표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15.
- 이훈진 (2000a).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의 사회적 추론: 맥락정보 사용과 귀인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39-451.
- 이훈진 (2000b).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27-438.
- 이훈진 (2000c). 편집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주의 및 기억편향. 심리과학, 9(1), 77-99.
- 이훈진 (2000d). 정신병적 장애. 원호택 외 공저, 심리장애의 인지행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이훈진 (2001). 편집성향 집단의 분노표현양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43-452.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 (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05-125.
- Alford, B. A., & Beck, A. T. (1994).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69-380.
- Bentall, R. P. (1996). From cognitive studies of psychosis to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psychotic symptoms. In G. Haddock & P. D. Slade(Ed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with psychotic disorders*. London: Routledge.
- Bentall, R. P., Haddock, G., & Slade, P. D. (1994).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persistent auditory

- hallucinations: From theory to therapy. *Behavior Therapy*, 25, 31-66.
- Bentall, R. P., Kaney, S., & Bowen-Jones, K. (1995). Persecutory delusion and recall of threat-related, depression-related and neutral word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445-457.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hadwick, P., Birchwood, M.,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voices and paranoia*.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hadwick, P. D. J., Lowe, C. F., Horne, P. J., & Higson, P. J. (1994). Modifying delusions: The role of empirical testing. *Behavior Therapy*, 25, 35-49.
- Chadwick, P. D. J.,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Kaney, S., Wolfenden, M., Dewey, M. E.,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ening propos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85-87.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Trower, P., & Chadwick, P. (1995). Pathway to defence of the self: A theory of two types of paranoia.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 263-278.

원고접수일 : 2001. 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1. 11. 5.
 게재결정일 : 2001. 12. 13.

Exploration of the Subtypes of Paranoia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Self-Concept

Hoon-Jin Le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ubtypes of paranoia with the core variables of paranoia, such as the self-concept, the other-concept, and the attributional style. The Paranoia Scale,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the Hostility Scale, the Self-concept Scale, the Other-concept Scale, the Social Self-concept Scale, and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23 college students, and the paranoid student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core of the Paranoia Scale. Using the K-means Cluster Analysis two subgroups were extracted. And also, the paranoid group was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self-concept. The subgroup with relatively high self-concept was showed more high social self-concept and less depression, and attributed the positive events more internally than the subgroup with relatively low self-concep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hostility and other-concept.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the subtypes of paranoia, self-concept, other-concept, attributional style